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 장 19 절]

NO	성명	기도제목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 장 3 절]

NO	대상자명	관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고

교회를 위한 기도

1)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9/11(금), Isaiah 61 워십 세미나(찬양집회)
- 9/13(주일), 다민족 연합기도회, 4pm (목자부흥의 밤 대체)
- 9/13 (주일), 신생아 축복기도, 3 부 예배시
- 9/15(화),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

2) 한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9/6~9/8, 오메가 교회 오메가 부흥축제 인도
- 9/10, 동탄 시온교회 특새 말씀 인도
- 9/11 GMI 은혜교회 금요성령집회 말씀 인도
- 9/21~9/30, 국제총회 및 동유럽 목회자 컨퍼런스

3)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GMI 16 기 선후생 미주훈련(7/6~10/4)



가정교회 보고서

은혜한인교회

가정교회 예배안

9.6.26



가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나는 누구를 빛나게 하고 있는가? | 잠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 Welcome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난 한 주 Grace Time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2. 말씀요약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통해 다듬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서로 충고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며,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빛나게 하려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 주자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을 잃기 쉽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수고와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충고하고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할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더욱 빛납니다.

2. 교회와 사역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 주자

(엡 2:21, 4:16)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함께 자람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사랑으로 충고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역자 역시 자신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각 마디'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작은 섬김과 인정의 말 한마디, 동역자를 향한 겸손한 존중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공동체를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3. 일터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 주자

일터는 그리스도인의 존중과 겸손이 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곳입니다. 성과와 경쟁 중심의 관계 속에서도 동료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부족함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깎아내리는 말보다 세워 주는 말을 할 때,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철입니다. 겸손히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세우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정교회와 그룹과 부서와 일터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빛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3. 함께 나눠봅시다

- 1) 오늘 말씀 「나는 누구를 빛나게 하고 있는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2) 가정, 교회, 일터에서 누군가의 인정이나 격려, 혹은 충고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3) 이번 주 내가 존중하고 격려하여 더 빛나게 세워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후,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